

21세기 비차별적 영어 어휘의 등장: Bachelorette와 Intersex을 중심으로

신근영
(전남대학교)

Shin, Keun Young. (2023). Emergence of non-discriminatory English words in the 21st centur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1(1), 25-44. This paper discusses how English words referring to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or minorities in the 20th century can be accepted as non-discriminatory words in the 21st century, focusing on *bachelorette* and *intersex*. The words *bachelorette* and *intersex* were rarely used in limited regions or genres whe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single women and intersex people were prevalent. The use of *bachelorette* and *intersex* has become increasingly necessary due to radical social changes regarding single women and intersex people in the 21st century. The words *bachelorette* and *intersex* avoid undergoing pejoration or being replaced by other new words because they have changed while reflecting the changes in English-speaking society and not going against the tendency to use gender-neutral language or people-first language. This paper suggests that even uncommon or potentially pejorative words can be widely used if their connotative meanings and uses are changed to reflect the needs of today's society.

주제어(Key Words): 언어 변화(language change), 비차별적 어휘(non-discriminatory word), 의미의 악화(pejoration), 미혼 여성(bachelorette), 간성(intersex)

1. 서론

언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는 언어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가치(value) 또는 함축(connotation)이 악화되는 의미의 악화(pejoration)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Grygiel & Kleparski (2007, p. 89)에 따르면 의미의 악화는 언어 사용자

가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에게 불리한(disadvantageous) 속성 또는 경멸적이거나 우스꽝스러운(contemptible or ridiculous) 속성이 있다고 여기게 되면 발생한다(Grygiel & Kleparski, 2007, p. 89).

20세기 중후반에는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등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사회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성수소자, 흑인, 장애인과 관련한 영어 어휘들의 변화를 야기 시켰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흑인 시민과 장애인을 지칭하던 *Negro*와 *handicapped*가 오늘날 부정적인 의미의 어휘가 된 것도 이들 단어가 흑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반영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Negro*는 1988년 12월 Jesse Jackson이 *African-American*이란 용어를 제안한 이후 빠르게 대체되었고(Ben, 1991), 1992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민권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개정 시 장애인을 *handicapped persons*가 아니라 *personal with disabilities*로 지칭할 것을 공식화하면서(H.R.5482, 1992) *handicapped*는 *disabled*로 대체되었다.¹⁾ 이처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감정적인(emotive) 의미 변화로 분류되는 의미의 악화(Stern, 1931, p. 411; Geeraerts, 2009, p. 28)를 쉽게 겪으며 이를 대체할 대안어를 만들어낸다.

미혼 여성과 간성을 나타내는 *bachelorette*와 *intersex*는 *Negro*, *handicapped*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정적인 의미 없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자연스런 삶의 과정으로 여겨졌고 생물학적 성은 남녀라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미혼 여성과 제3의 성을 가진 간성인은 오랫동안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혼 여성과 간성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던 시대에 등장한 *bachelorette*와 *intersex*가 어떻게 21세기의 비차별적인 어휘로 정착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지칭하는 영어 어휘들이 어떻게 언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어원(etymology) 정보는 Oxford English Dictionary(OED)를 참고하였다.²⁾ 영어 최대의 어원사전인 OED는 고대 영어부터 오늘날의 영어까지 60만개 이상의 영어 어휘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실제 사용된 용례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1857년부터 사전 만들기 작업이 시작된 OED는 역사언어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인다. OED는 1989년 총 20권 21,728쪽에 달하는 2판이 발간된 이후 그 방대해진 내용과 매달 이루어지는 업데이트로 인해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어원 정보 역시 온라인 OED에서 추출한 것이다.³⁾

1) 비록 *disabled*는 17세기부터 장애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지만, 20세기 후반이 되어야 *handicapped*의 대안어로 장애인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2) OED Online (www.oed.com), Oxford University Press.

3) 본 논문에 인용된 OED 정보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추출한 것으로 2023년 2월 4일 기준 OED 정보와 그 내용이 같다.

또한 어휘들의 시기별 사용 빈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8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출판된 서적을 모은 구글 코퍼스(Google Books (standard) Corpus) 자료를 Google Ngram Viewer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bachelorette*와 *intersex*의 사용 빈도 변화에 대한 정보는 구글 코퍼스의 일반영어(English) 자료를 사용하였다. Google Ngram Viewer를 사용한 경우 일반 영어 분석 자료와 미국 영어 분석 자료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영어 어휘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텍스트 내에서 공기하는 연어(collocation) 등 구글 코퍼스의 정보를 면밀히 보기 위해서 브리햄영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BYU)대학의 Mark Davies교수가 제공하는 구글 BYU 코퍼스(Google Books (BYU/Advanced) Corpus) 중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영어 코퍼스를 사용하였다. 이 정보는 Ngram을 사용한 구글 코퍼스와 구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BYU 코퍼스”로 표기하였다. 이 밖에 어휘가 사용된 장르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미국 영어 자료를 모은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를 사용하였다.⁴⁾

2. 미혼 여성에 대한 비차별적 어휘 *bachelorette*

2.1. *bachelorette*의 등장

*bachelorette*는 미혼 남성을 뜻하는 *bachelor*에 접미사 *-ette*를 붙여 파생된 어휘이다. OED에 따르면 *bachelorette*는 1935년에 한 여성 모임(feminine social club)의 이름으로 처음 기록되었으며, 20세기 중후반부터 미혼 여성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캐나다에서 주로 사용되었다.⁵⁾ *bachelorette*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이전인 1890년대 후반에는 *bachelor*에 여성을 뜻하는 명사가 붙는 *bachelor girl*과 *bachelor woman*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OED).

4) 자세한 구글 코퍼스, BYU 코퍼스, COCA의 차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english-corpora.org/googlebooks/compare-googleBooks.asp>.

5) OED에서는 *bachelorette*의 최초 기록을 1935년으로 보고 있지만, 구글 코퍼스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1896년 <<The Looker-on: Musical, Dramatic, Literary>> 2권에 실린 “The Dummy”라는(저자: Alice Yates Grant) 희곡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Jessica라는 등장인물이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을 때 상대 인물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Miss Cornelia: “Where did you ever pick up such a remarkable word? A bachelorette!

What in the world is a bachelorette?” (Grant, 1898, p.805).

*bachelorette*의 출처와 의미를 묻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단어가 매우 생소하고 창의적인 표현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BYU 코퍼스에 1890년 이 하나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1920년대까지 *bachelorette*가 사용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1906년대 발행된 <<Queen 10>>에서는 *bachelor girl*이 *old maid*를 대체한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The term ‘old maid’ is now seldom or never heard; the expression ‘bachelor girl’ has taken its place” (OED). 이처럼 *bachelorette*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미혼 여성은 *old maid* 또는 *spinster*로 지칭되었다. 16세기부터 *old maid*는 결혼적령기가 지나도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고, 원래 물레질(spinning)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던 *spinster*는 17세기부터 나이든 미혼 여성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다(OED).

소위 ‘노처녀’를 뜻하는 *old maid*와 *spinster*는 미혼 여성을 경멸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반면, 중세 영어부터 지금까지 미혼 남성을 지칭한 *bachelor*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이러한 남녀 어휘의 의미 차이는 20세기 이전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여준다.⁶⁾ 결혼적령기는 정상적인 여성의 삶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젠더 규범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라 할 수 있다(전희경, 2013). 따라서 결혼적령기를 지난 미혼 여성은 보편적 젠더 규범을 어기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이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old maid*와 *spinster*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결혼과 연애의 자유 그리고 성적 자유가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20세기의 페미니즘 운동의 여파로(Foster, 2012) *old maid*, *spinster*와는 다른 미혼 여성을 지칭하는 새로운 어휘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처럼 미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bachelorette*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가 없이는 이 단어가 언중들에게 수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2. 21세기의 결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

2000년에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에 게재된 한 논문(Encarnación, 2000)은 여성 관련 어휘를 분석하면서 *bachelor*와 쌍을 이루는 여성 명사로 *spinster*를 언급하고 있다.⁷⁾ 이처럼 20여 년 전만 해도 *bachelorette*는 미혼 여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구글 코퍼스에 따르면 *bachelorette*는 1980년대부터 사용이 완만히 증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 영어 BYU 코퍼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bachelorette*가 처음 기록된 18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견된 총 3,942개의 토큰 중 3,474개(88.13%)가 2000년 이후에 사용되었다.⁸⁾ 더욱이 2003년쯤부터 그 사용이 거

6)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처녀를 뜻하는 *virgin*이라는 단어 정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미혼 여성을 나타내는 이 단어 역시 18세기에는 *old spinster*나 *old maid*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OED).

7) 이 논문의 1987년 발행한 Cobuild 영어 사전의 여성 어휘를 분석하는 내용에서도 *bachelorette*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8) 1890년대에 *bachelorette*가 기록된 문서는 희곡 한 편으로 각주 5를 참고하기 바란다.

의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1세기 초가 되어서야 *bachelorette*가 미혼 여성을 뜻하는 단어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COCA를 이용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된 *bachelorette*를 살펴본 결과 이 단어는 TV/영화, 뉴스와 잡지, 구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총 131개 중 89개(67.94%)가 2003년 이후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용 분포의 원인으로 2003년 1월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he Bachelorette>>라는 TV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 2002년에 방영된 <<The Bachelor>>의 스핀오프로 시작된 <<The Bachelorette>>는 능력 있고 아름다운 “the bachelorette”가 주인공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따라서 이 TV 프로그램이 당시 생소한 *bachelorette*라는 단어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TV 프로그램의 방영으로만은 *bachelorette*의 사용 빈도가 200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⁹⁾

21세기 초는 미국 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된 시기이다. 미국의 미혼 여성 천 명당 혼인률은 1970년에는 76.5%였지만 2000년에는 46.5%로 줄었고 2004년에는 39.9%로 급속히 감소하였다(Popenoe & Whitehead, 2005). 또한 미국 중산층 여성의 혼인 연령과 초산 연령을 비교한 자료(Hymowitz et al., 2013)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초산 연령이 혼인 연령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점점 줄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초산 연령이 혼인 연령보다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2010년에는 초산으로 출생한 아이들의 58%가 미혼모의 아이였다. 다시 말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결혼적령기의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동거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21세기 초부터 *bachelorette*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여성이 결혼이라는 젠더 규범에서 자유로워지면서 *bachelorette*의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bachelorette*가 21세기의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어권 화자들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접미사의 재해석과 새로운 문화 용어의 사용

*bachelorette*가 사용된 1970-80년대는 제2물결 페미니즘의 여파로 성 중립적(gender-neutral/gender-fair) 언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였다(Pauwels, 2003). 성 중립적 언어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기존에 남녀를 구분하여 쓰였던 어휘들을 성 통합 어휘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 접미사를 붙여 파생된 여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이 정책을 받아들인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원고 작성 시 오스카

9) <<The Bachelorette>>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되었던 2006년과 2007년을 비롯해 2003년 이후 *bachelorette*의 사용 빈도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3절에서 논의되지만 *bachelorette*는 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크지 않은 *bachelorette party/parties*의 형태로 자주 쓰였다.

(Oscar) 등의 상 이름을 제외하고는 남녀 배우를 모두 *actor*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The Guardian, 2021). 가디언은 남성 명사에서 파생된 *actress*가 남성 중심의 직종에서 여성 종사자를 구별 지어 지칭하기 위해 쓰였던 *authoress*, *comedienne* 등의 성차별적인 표현과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The Guardian, 2021). 여성 파생 명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 어원에서 찾기도 한다. *actress*는 남성들만 가능했던 무대에 여성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로 처음에는 단순히 여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녀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배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된다(Quinsey, 1996). 이러한 의미의 악화는 여성만을 지칭하는 어휘들에서 흔하게 발생한다(Schulz, 1975).

오늘날 성 중립적 언어 사용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남성 명사에서 파생된 *bachelorette*가 성 중립적 언어 사용 정책에 반하는 성차별적인 어휘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의미의 악화를 겪기 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actor/actress*, *waiter/waitress*처럼 남성 명사에 여성 명사를 파생시킬 데 흔히 사용되는 접미사인 *-ess*가 아닌 *-ette*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towelette, *kitchenette* 등이 단어가 보여 주듯이 접미사 *-ette*는 크기가 작은 ‘소형’을 나타내는 프랑스어 여성형 접미사로 *-ette*로 끝나는 프랑스어 어휘가 영어에 차용되면서 들어왔다(OED). 하지만 *-ette*는 19세기 중반 여성을 나타내는 영어 접미사로 재탄생되었고, 20세기 초부터 다른 명사에 붙어 여성 명사를 파생시키는 데 사용되었다(OED). 하지만 *farmerette*, *conductorette*처럼 많은 *-ette*로 끝나는 어휘들도 대부분 *-ess*로 끝나는 여성 명사처럼 20세기 중후반에 성 통합 어휘들로 대체되면서 지금은 매우 어색한 표현들이 되었다. 여전히 잘 알려진 *-ette*로 끝나는 명사는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를 지칭하는 *suffragette*와 밴드를 이끄는 여자 고적대장을 가리키는 *majorette* 정도 밖에 없다. 이들 여성 명사는 대응하는 남성 명사가 없는 경우로 남성에 비해 열등하거나 부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지 않는다. 오히려 *suffragette*와 *majorette*는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반대로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bachelorette*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21세기 초에는 접미사 *-ette*는 *-ess*와 달리 여성을 긍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접미사로 재해석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bachelorette*가 성차별적인 어휘로 여겨지지 않고 미혼 여성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여성 명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bachelorette*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이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어휘의 의미 해석은 실제 사용되는 담화의 맥락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어휘의 함축적 의미(connotative meaning)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에서 공기하는 언어

10) 구글 코퍼스에 따르면 *suffragette*은 *bachelorette*보다 더 많이 사용되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suffragette*의 사용빈도는 *bachelorette*와 매우 비슷한 패턴의 상승 곡선을 보인다.

(collocation)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Louw, 2000; Xiao & McEnery, 2006). 구글 코퍼스와 BYU 코퍼스를 통해 *bachelorette*와 가장 많이 쓰이는 연어를 살펴 본 결과 이 단어는 *party* 또는 *parties*와 가장 많이 쓰였다. BYU 코퍼스의 경우 1990년대에 사용된 총 328개의 토큰 중 42.38%가 *bachelorette party/parties*로 쓰였으며 이 수치는 2000년대 급격히 증가하여 총 3,474개의 토큰 중 76.63%가 *party/parties*와 같이 쓰였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bachelorette party*는 전통적인 *bridal shower*와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미국의 사회학자 Beth Montemurro에 따르면 주로 침실이나 부엌 용품을 선물하는 *bridal shower*는 신부에게 가정에서 요리하고 살림을 하는 주부로써의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이다(Montemurro, 2006). 반면 *bachelorette party*는 남성의 *bachelor party*를 모방한 모임으로 결혼을 앞둔 남녀의 동등한 성적 지위를 강조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Montemurro, 2003, 2006).¹¹⁾ 전통적인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이자 신부와 지인들이 함께 즐기는 파티를 언급하는 데 *bachelorette*가 가장 많이 쓰였다는 것은 *bachelorette*가 여성과 관련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21세기에 이 어휘가 의미의 악화를 겪지 않은 이유를 보여준다.¹²⁾

결론적으로 *bachelorette*가 *bachelor*에 대응하는 비차별적인 여성 명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는 언어적 이유와 비언어적 이유가 둘 다 존재한다. 다시 말해 21세기의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성평등의 문화의 등장, 그리고 *-ette*의 재해석으로 *bachelorette*가 미혼 여성을 지칭하는 긍정적인 어휘로 쓰일 수 있었다.

3. 간성에 대한 비차별적 어휘 *intersex*

3.1. *intersex*의 등장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male*과 *female*은 이원적 반의어(complementary antonymy)의 예시로 종종 사용된다(Cruse, 2010). 즉,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단어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male*과 *female*의 의미 관계는 논리적 함의(entailment)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¹³⁾ 하지만 2016년 12월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성별란에 제3의 성을 뜻하는 *intersex*

11) Montemurro(2006)는 *bachelorette party*에서 신부의 친구나 가족이 신부에게 결혼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과장되게 이야기함으로써 여전히 성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12) 구글 코퍼스에서도 *bachelorette party*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party/parties* 외 *bachelorette* 뒤에 쓰이는 언어들은 *pad*, *weekend*, *apartment* 등이 있다.

13) 예를 들어 “A is a male”가 참이면, “A is not a female”가 참이며, “A is not a male”가 참이면 “A is a female” 참이 된다.

가 적힌 출생신고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별은 더 이상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화하였다(Duglas, 2016). 간성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과는 다른 개념으로 선천적으로 성기나 성염색체 등으로 남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칭한다. 즉, 내외부 생식기의 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난소와 고환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성염색체는 여성이지만 성기는 남성인 경우 등이 간성에 해당된다.¹⁴⁾

접두사 *inter-*와 *sex*가 결합된 이 단어의 최초 기록은 1770년으로 ‘남녀 간에 일어나는’을 뜻하는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다(OED).¹⁵⁾ 1916년에 유전학자 Richard Goldschmidt가 학술 용어로 *intersex*를 제안하면서부터 간성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OED). 그렇다고 *intersex*라는 단어가 영어에 처음 등장한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간성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중세영어 시기에 간성은 라틴어에서 차용된 *hermaphrodite*로 표현되었다(OED). 이 단어는 원래 고유 명사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마프로디토스(Hermaphroditos)를 가리킨다(OED). 헤르마프로디토스는 헤르메스 신과 아프로디테 신의 아들로 그의 미모에 반한 물의 요정 살마키스가 샘물에서 도망치는 헤르마프로디토스를 안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남녀가 합쳐진 양성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써 *hermaphrodite*는 14세기 후반에 남녀의 생식기관을 모두 가진 사람 또는 동물을 지칭하는 생물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다(OED). 이후 약 17세기경 *hermaphrodite*는 여성적인 남성 또는 남성적인 여성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확장되었고, 성인 남자가 성노예로 부리던 소년인 미동(catamite)을 지칭하기도 하였다(OED).¹⁶⁾ 확장된 부정적인 의미는 *hermaphrodite*가 간성인을 뜻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쓰이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¹⁷⁾ 더욱이 1874년 발행된 논문에서 미국의 외과 의사 W. H. Van Buren와 비뇨기과 의사 E. L. Keyes는 “The monstrosity known as hermaphrodite does exist, but is excessively rare”(Van Buren & Keyes, 1874, p.30)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hermaphrodite*는 전문가들조차 간성을 흉물스럽다고 여기던 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다.

오늘날 *hermaphrodite*는 간성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로 간주되지만 20세기 말까

14) 간성(intersex)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의학적으로는 성기, 성선, 염색체로 남녀 구분이 어려운 경우를 나타내는 반면, 간성인 지지 단체들은 아래의 유엔인권 사무소가 사용하는 *intersex*의 정의처럼 폭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Intersex” is an umbrella term used to describe a wide range of innate bodily variations in sex characteristics. “Intersex” people are born with sex characteristics that do not fit typical definitions for male or female bodies, including sexual anatomy, reproductive organs, hormonal patterns, and/or chromosome pattern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2019, p.2).

15) 현재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된다(OED).

16) 의미의 확장도 일어나 자웅동체의 동식물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17) OED의 전신인 New English Dictionary(1898)에서는 *hermaphrodite*에 대해 일부 인종이나 괴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다가 사전 출판 당시 흉물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한다.

지도 이 단어는 학계에서도 종종 사용되었던 용어이다.¹⁸⁾ 다시 말해 20세기 중후반에 *hermaphrodite*와 *intersex*가 같이 쓰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hermaphrodite*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hermaphrodite*가 가진 부정적인 함축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은 *hermaphrodite*에서 파생한 *hermaphroditism*이 간성을 나타내는 적절한 학술 용어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¹⁹⁾ 이 단어를 사용하여 간성은 true hermaphroditism, male pseudo-hermaphroditism, female pseudo-hermaphroditism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분류가 현대 유전학 및 내분비학을 기반으로 한 간성의 분류 체계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Dreger et al., 2005).²⁰⁾ *intersex*가 *hermaphrodite/hermaphroditism*을 대체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학술적 논쟁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3.2. 간성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 변화

구글 코퍼스로 *intersex*의 사용 빈도를 관찰해보면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소폭으로 증가한 후 별 변화가 없다가 1990년대 말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후 *intersex*의 사용 빈도는 2019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 절에서는 *intersex*의 사용 빈도의 변화의 원인을 논하고자 한다.

UN 인권사무소를 비롯해 interACT, Intersex Human Rights Australia 등의 간성인 지지 단체들은 Fausto-Sterling(2000)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1.7%의 인구가 간성인으로 태어나며, 이는 인간이 빨간 머리를 가질 확률과 유사한 것으로 간성인이 매우 드물지 않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영어권 일반 대중들이 간성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이 되어서였다.

20세기 후반 성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John Money는 성적체성(sexual

18) 1993년에 설립된 The Intersex Society of North America (ISNA) 등의 간성인 지지 단체들은 *hermaphrodite*로 간성인을 표현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국 오하이오주는 출생신고서에 간성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hermaphrodit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20세기 간성인 연구로 유명한 John Money 역시 논문에서 *hermaphrodit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 20세기 초부터 이러한 분류 체계가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Dreger et al., 2005).

20) true hermaphroditism, male pseudo-hermaphroditism, female pseudo-hermaphroditism은 한국어로 진성반음양증, 남성 가성반음양증, 여성 가성반음양증으로 불린다.

21) Sax(2002)에 따르면 1.7%라는 Fausto-Sterling(2000)이 발표한 수치는 클라인펠터증후군(Klinefelter syndrome)이나 터너증후군(Turner syndrome)등을 포함하며, 의학적 정의로 간성은 전체 인구의 0.018%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별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만은 4,500명 중 한 명 정도로 추정된다(Hughes et al., 2006). 간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interACT와 Intersex Human Rights Australia 등의 간성인 지지 단체들은 *intersex*는 성 발달 장애가 나타나는 다양한 증후군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dentity)은 생물학적 요인보다 어린 시절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발달된다는 일련의 논문들(Money, 1968; Green & Money, 1969; Money & Ehrhardt, 1972 등)을 발표하여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John Money의 영향력으로 간성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외과 수술 등을 통해 남자 또는 여자로 성별을 정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20세기 말까지 학계에 만연하였다(Kessler, 1990; Diamond, 1997; Hughes et al., 2006). 그러나 1997년에 John Money의 연구 대상이자 그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David Reimer의 비극적인 이야기(Colapinto, 1997)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²²⁾ 이후 BBC 등의 대중 매체에서 간성인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뉴스를 방영하면서 간성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²³⁾ 또한 이 시기에는 간성인의 삶과 심리에 초점을 둔 새로운 연구의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John Money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 논문들(Diamond, 1997; Preves, 1998, 2005 등)은 간성인에 대한 심리적 지지의 중요성 및 유년기에 이루어지는 의학적 성 지정(sex assignment)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간성인에 대한 학계의 인식 변화와 대중들의 관심은 *intersex*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구글 코퍼스에서 *intersex*의 사용 빈도가 21세기 직전에 급증한 이유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intersex*의 사용 빈도는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쯤부터는 그 증가 폭이 더욱 커져 2000년에 비해 2019년에는 그 사용 빈도가 거의 7배 증가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 간성인은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²⁴⁾ 2000년대 후반부터 간성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²⁵⁾ 이 단체들은 간성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22) 이 이야기는 John/Joan 사례(John/Joan case)로도 알려져 있다. 남자 쌍둥이로 태어난 David Reimer는 생후 8개월에 의료 사고로 성기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된다. 그의 부모는 John Money와의 상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David Reimer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 아이로 키워진다. 이 과정에서 여성으로써의 정체성을 발달시킨다는 명목 하에 학대를 당하고, 그가 보이는 남성성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그는 큰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남자의 삶을 다시 살게 된 David Reimer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자신에게 행해진 John Money의 실험의 문제들을 대중들에게 밝힌다.

23) 1998년 BBC Worldwide에서는 간성인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Joella’s Journey” (1997년 Gail Tayler 감독, 제작)를 방영한다.

24) 2002년에 발간한 Jeffrey Eugenides의 간성으로 태어난 영웅들에 관한 소설 <<Middlesex>>은 2003년에 풀리처상을 수상하고, 2007년에는 미국 도서 판매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Oprah’s Book Club (<https://www.oprah.com/app/books.html>)에 소개된다. 2019년에 간성인 선수들이 올림픽 여자육상경기에 참가하는 데 제재를 두는 사건(Savage, 2021)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간성인 관련 이슈들이 관심을 받았다.

25) 2006년에 설립된 InterACT: Advocates for Intersex Youth, 2009년에 설립된 Intersex Human Rights Australia, 2011년에 설립된 Intersex Campaign for Equality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간성인 아동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던 의학적 개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고, 2015년에는 UN과 WHO 등의 국제기구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최근에는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간성을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사건들이 급증하였다.²⁶⁾ 2016년 11월에 콜로라도 주민 Dana Zzyym의 소송에서 간성을 인정하지 않는 여권 발행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Dana Zzyym은 2021년 미국시민 최초로 성 중립적인 여권을 발행 받았다(Hauser, 2021). 또한 2016년에 캘리포니아 주민 Sara Kelly Keenan은 뉴욕시로부터 간성이 기입된 출생증명서를 최초로 발급 받게 된다(Duglas, 2016). 이처럼 간성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임상적(clinical)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intersex*의 사용 빈도가 수직 상승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3. 대안어의 등장과 *intersex*의 함축적 의미 변화

1990년대 말 간성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을 때 그 당시 사용되던 *intersex*는 간성을 폄하하는 단어(derogatory term)로 여겨질 수 있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2006년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 on Intersex에서 *intersex* 대신에 *disorders of sex development(DSD)*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Lee et al., 2006). 하지만 *DSD*는 전문의들 사이에서만 주로 통용되었으며, 질환 또는 장애를 뜻하는 *disorder*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간성인들조차 *DSD*의 사용에 반감을 보였다(Lin-Su et al., 2015; Johnson et al., 2017). 어떤 간성인들은 *DSD*라는 용어가 간성인을 환자로 낙인찍는다고 보았다(Johnson et al., 2017). 이러한 *D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인지한 학계와 간성인 지지 단체들은 또 다른 새로운 대안어로 *differences of sex development*(Diamond & Beh, 2008; Topp, 2013)와 *variations of sex development*(Tamar-Mattis & Diamond, 2007)를 제안하였다.²⁷⁾ 하지만 최근 간성인과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Johnson et al., 2017)에 따르면 간성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 중에 *intersex*가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이며 대중 매체 등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로 밝혀졌다.²⁸⁾ 대안어를 쓰려는 학계와 간성인 지지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intersex*가 간성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어휘로 쓰일 수 있었을까?

26)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몰타는 2015년에 외국인의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2019년에 독일은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이보연, 2019).

27) *intersex* 대신에 *disorders of sex development*를 사용할 것을 중용하던 InterACT와 그 전신인 ISNA도 *disorders*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인지하고 최근 이를 대체할 용어로 *difference of sex development*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면서도 *intersex*가 널리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intersex*의 사용을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한다.

28) 구글 코퍼스를 조사하면 *DSD*가 나온 이후에도 *intersex*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tersex*의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는 이 단어가 간성을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같은 성 정체성의 문제로 오해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Topp, 2013). 실제 OED에 따르면 *intersex*가 간성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할 당시 때때로 트랜스젠더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20세기 전반에는 동성애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례도 찾을 수 있다(OED).²⁹⁾ 다시 말해 *intersex*는 선천적으로 결정된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반대의 성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단어로 쓰였던 것이다. 하지만 단어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특수화(specialization)를 통해 오늘날 *intersex*는 간성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transgender*라는 영어 단어가 등장하면서(OED) *intersex*의 간성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 *intersex*가 계속해서 미디어나 일반 대중들에 의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의미의 특수화를 통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⁰⁾ 더욱이 1990년대 말 David Reimer의 사건이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전까지 *intersex*는 주로 학계에서만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이 단어는 익숙지 않은 전문 용어로 경멸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어휘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intersex*가 계속해서 쓰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간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intersex*의 함축적 의미도 변하였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어휘의 내연적으로 함축된 의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담화 맥락에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intersex*의 함축(connotation)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BYU 코퍼스를 이용하여 *intersex*와 공기하는 단어들을 조사하였다.³¹⁾ *intersex*는 주로 *intersex conditions*와 같이 또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공기하였다. 이에 *intersex* 바로 뒤에 공기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다.³²⁾ 아래의 표 1과 표 2는 각각 1980년대에 100개 이상 나온 연어들과 2000년대 200개 이상 나온 연어들을 보여준다. 통시적 사용 변화를 보기 위해 각 표에서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이들 연어들의 빈도수를 비교하였다. 표의 백분율은 1980년대의 총 1,437개의 토큰과 2000년대의 총 5,787개의 토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29) 다음은 OED에서 *intersex*가 간성 이외의 의미로 쓰인 용례로 사용한 것으로 1925년에 발행된 *The Medical Critic & Guide*에서 발췌한 것이다.

Let us agree to call homosexuality merely a 'variation', an intersex or third sex—this does not change the essence of the thing. A creature with male genitalia and a female psyche is an abnormality.

30) 일부 간성인들은 *intersex*가 *transgender*와 혼동되거나 선정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여겨 이 어휘의 사용에 대해 반감을 보이기도 한다(Johnson et al., 2017, p 608).

31) BYU 코퍼스에서는 구글 코퍼스보다 그 사용 빈도의 증가 폭이 작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ntersex*의 사용이 많아졌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32) 함축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1990년대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표 1. BYU 코퍼스에서 1980년대 100번 이상 사용된 언어:
1980년대와 2000년대 빈도수 비교

	1980년대	2000년대
state(s)	114 (7.71%)	85 (1.47%)
problem(s)	108 (7.33%)	104 (1.78%)
patient(s)	103 (6.99%)	63 (1.09%)

표 2. BYU 코퍼스에서 2000년대 200번 이상 사용된 언어:
2000년대와 1980년대 빈도수 비교

	2000년대	1980년대
condition(s)	867 (14.98%)	65 (4.41%)
people/person(s)	540 (9.33%)	1 (0.07%)
disorder(s)	247 (4.27%)	61 (4.13%)
individual(s)	245 (4.23%)	17 (1.15%)

*disorder(s)*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와 2000년대에 *intersex*가 선호하는 언어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1980년대는 부정적인 어휘라 할 수 있는 *problem(s)*와 *patient(s)*와 많이 공기한다. 반면 2000년대는 *intersex*가 4배 이상 더 사용되었지만 이들 두 언어의 사용 횟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다. 특히 간성인을 지칭함에 있어 1980년대는 *patient(s)*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people*이 *intersex*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더욱이 2000년대는 *intersex* 전체 토큰의 19.2%가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people/person(s)*, *individual(s)*, *infant(s)*, *child/children*과 쓰였다.³³⁾

1990년대 이전에는 간성에 관한 논문들의 내용이 주로 간성인 아동의 성을 정해주는 의학적 개입에 관한 것이었다(MacKenzie et al., 2009). 따라서 1980년대에 *intersex*가 *patient(s)*나 *problem(s)*와 같은 부정적 어휘와 많이 쓰인 것은 그 시절 간성은 고쳐야 할 병이자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3.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서서 간성인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제3의 생물학적 성을 가진 일반 시민으로 남성, 여성과 똑같은 법적, 행정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에 *intersex*가 *patient(s)*보다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people/person(s)*, *individual(s)*, *infant(s)* 등의 용어와 많이 쓰인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즉, 21세기의 간성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intersex*의 사용 맥락을 바꿔 그 내포적 의미를 변화시켰다.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언어 사용에 있어 또 다른 차이가 있다. 1980년대에는 *state(s)*와

33) 1980년대는 *people*과는 한 번 사용되었고, *infant(s)*와는 사용된 기록이 전혀 없다.

가장 많이 공기하였고, 2000년대에는 비슷한 의미의 *condition(s)*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구글 코퍼스에서 *intersex states*와 *intersex conditions*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보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intersex states*의 사용 빈도는 감소하는 반면 *intersex conditions*의 사용 빈도는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condition*과 *state*는 유의어이지만 사전적 정의로 비교해보면 *state*는 *condition*과 달리 특정 기간의 상태를 나타낸다.³⁴⁾ *intersex states*와 *intersex conditions*의 사용 변화는 일시적인 상태로 보던 간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1980년대에 간성을 유년기 시절에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보던 시각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intersex*의 사용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intersex condition(s)*가 급증한 데에는 언어 정책의 영향력도 있다. 1980-90년대의 미국에서는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소위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피플-퍼스트(People-First/Person-First) 언어 사용이 강조되었다(Kailes, 1985; Hadley & Brodwin, 1988; Forge, 1991; Wehmeyer et al., 2000). 이 언어 정책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장애를 나타내는 구(*phrase*)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people with disabilities*로 표현하였다. 피플-퍼스트 언어 사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disabled people*과 같이 한정적인 수식어가 사람 앞에 사용하는 아이덴티티-퍼스트(*identity-first*) 방식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피플-퍼스트 식의 표현은 학술지 원고 작성 지침 및 정부 기관의 공문서에 명시될 정도로 장애인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R.5482, 1992; Gernsbacher, 2017).

2000년대에 *intersex*가 *condition(s)*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가 피플-퍼스트 언어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 정책에 따르면 간성인은 *people with intersex conditions*, *individuals with intersex conditions*와 같은 [사람 명사 + *with intersex conditions*]의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간성인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관심이 점점 많아진 21세기에는 간성인을 나타내는 표현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피플-퍼스트 방식에서 사용되는 *intersex conditions*의 사용 빈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people with intersex conditions*, *individuals with intersex conditions*의 사용 빈도의 변화이다. 구글 코퍼스에서 살펴보면 이들 표현은 큰 폭으로 사용 빈도가 증가하다가 DSD라는 대안어가 등장한 2006년을 기점으로 그 상승 폭이 주춤하거나 잠시 감소하였다. 또한 아이덴티티-퍼스트 방식으로 간성인을 나타내는 *intersexed people*, *intersexed individuals* 등의 사용 빈도 또한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DSD의 사용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DSD를 사용함에 있어 피플-퍼스트 언어 정책을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성인을 *people with DSD(s)*로 표현하였다(Baratz & Sharp, 2014). 그들은 간성인을 피플-퍼스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아이

34) Collins Dictionary(www.collinsdictionary.com), Macmillan Dictionary(www.macmillandictionary.com) 등의 영어 사전에서 두 어휘의 의미 차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덴티티-퍼스트 표현 방식에서 사용되는 *intersexed*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DSD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intersex*는 *conditions*와 결합하여 피플-퍼스트 방식으로 간성인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intersex*의 사용이 피플-퍼스트 언어 정책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DSD의 등장 이후 그 상승폭이 주춤하던 *with intersex conditions*의 사용 빈도는 DSD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면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오히려 피플-퍼스트 논쟁이 DSDs의 의미는 *intersex conditions*와 동일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간성의 다양한 변이형을 포괄하는 데 *intersex*보다 DSDs가 적절하다는 학계의 주장(Topp, 2013)도 힘을 잃게 되어버렸다.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한 *intersex*는 그 어원이나 의미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요소가 없고 점점 간성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 어휘들과 공기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함축도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간성인 본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대중 매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ntersex*가 앞으로도 사회의 다방면에서 쓰이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bachelorette*와 *intersex*를 통해 21세기의 미혼 여성과 간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bachelorette*와 *intersex*가 의미의 악화를 겪지 않고 21세기의 비차별적인 어휘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들 어휘의 어원과 의미 변화, 유의어와의 의미 관계,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비록 *bachelorette*와 *intersex*는 기존의 차별적인 어휘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어로 제시되었지만, 이들 어휘가 등장한 20세기 초중반은 미혼 여성과 간성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만연한 시기였다. 이들 어휘가 의미의 악화를 겪지 않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야 *bachelorette*와 *intersex*가 미디어나 영어권 일반 대중들에 의해 쓰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사회적 필요성 및 요구로 인해 대중들에게 노출된 어휘로 영어권 사회의 변화와 현대 과학의 지식을 반영하며 변화하였다. 특히 *bachelorette*는 성적 평등의 새로운 문화인 *bachelorette party*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intersex*는 *conditions*, *people* 등의 어휘와 공기함으로써 간성에 대한 임상적 차원뿐만 아니라 간성인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며 그 사용이 변화되었다. *Negro*, *handicapped*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지칭하는 어휘들이 흔히 의미의 악화를 겪은 것과는 달리 *bachelorette*와 *intersex*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된 맥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의 악화를 피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들과 관련한 어휘의 사용에 있어 제재가 많았던 시기이다. 남성 명사에서 파생한 *bachelorette*가 성

중립 언어 정책의 비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ette*의 의미가 21세기에 긍정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intersex* 역시 피플-퍼스트 정책에 맞는 표현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와 관련한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bachelorette*와 *intersex*는 기존에 한정적으로 드물게 쓰이던 어휘들도 21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로 인해 널리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기존의 어휘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명목 하에 수립된 언어정책에 반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그 사용 및 의미가 변화된다면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는 어휘로 발달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전희경. (2013). 1960~80년대 젠더 - 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29(3), 41-79
- 이보연. (2019). '제3의 성'의 법적 인정 - 2017년 10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1), 437-464.
- Baratz, A., & Sharp M. (2014).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peer support. In Hiort, O, & Ahmed, S.F. (Eds.), *Understanding differences and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DSD)* (pp. 99-112). Basel, Switzerland: Karger.
- Ben L. M. (1991). From Negro to Black to African american: The power of names and naming.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6(1), 83-107.
- Colapinto, J. (December 11, 1997). The true story of John/Joan. *Rolling Stone*. Retrieved from January 28, 2023, from <https://www.healthypace.com/gender/inside-intersexuality/the-true-story-of-john-joan>
- Cruse, A. (2010).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amond, M., & Beh H. (2008).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children with intersex conditions. *Nature Clinical Practice. Endocrinology & Metabolism*, 4(1), 4-5.
- Diamond, M. (1997) Sexual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in children with traumatized or ambiguous genitalia.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4(2), 199-211.
- Dreger, A. D., Chase, C., Sousa, A., Gruppuso, A., & Frader, J. (2005). Changing the nomenclature/taxonomy for intersex: A scientific and clinical rationale. *Journal of Pediatric Endocrinology & Metabolism*, 18(8), 729-733.
- Encarnación H. T. (2000). Gender, sex and stereotyping in the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20(2), 211-230.

- Duglas, E. (December 29, 2016). Sara Kelly Keenan issued nation's first known intersex birth certificate. *Washington Times*. Retrieved December 20, 2022, from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6/dec/29/sara-kelly-keenan-issued-nations-first-known-inter/>
- Fausto-Sterling, A. (2000). *Sexing the body: Gender politics and the construction of sexuality*, New York: Basic Books.
- Forge, L. (1991). Preferred language practice in professional rehabilitation journals. *Journal of Rehabilitation*, 57(1), 49-51.
- Foster, T. (2012). *Documenting intimate matters: Primary sources for a history of sexuality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eraerts, D. (2009).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rnsbacher M. A. (2017). Editorial perspective: The use of person-first language in scholarly writing may accentuate stigm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58(7), 859-861.
- Goldschmidt, R. (1916). A preliminary report on further experiments in inheritance and determination of sex.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1), 53-58.
- Green, R., & Money, J. (1969). *Transsexualism and sex reassignment*.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rygiel, M., & Kleparski, A. (2007). *Main trends in historical semantics*. Rzeszów: Wydawnictwo Uniwersytetu Rzeszowskiego.
- Hadley, G., & Brodwin, G. (1988). Language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3), 147-149.
- Hauser, C. (October 27, 2021). U.S. Issues first passport With 'X' gender marker. *New York Times*. Retrieved January 02, 2023, from <https://www.nytimes.com/2021/10/27/us/us-first-passport-gender-x.html>
- H.R.5482 - 102nd Congress (1991-1992): 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of 1992. (October 29, 1992). Retrieved December 20, 2022,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02nd-congress/house-bill/5482>
- Johnson, K., Rosoklija, I., Finlayson, C., Chen, D., Yerkes, B., Madonna, B., Holl, L., Baratz, B., Davis, G., & Cheng, Y. (2017). Attitudes towards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nomenclature among affected individuals. *Journal of Pediatric Urology*, 13(6), 608.e1-608.e8.
- Hughes, A., Houk, C., Ahmed, F., Lee, A., LWPES Consensus Group, & ESPE

- Consensus Group (2006). Consensus statement on management of intersex disorder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1(7), 554-563.
- Hymowitz, K, Carroll, J., Wilcox, B., & Kaye, K. (2013). *Knot yet: The benefits and costs of delayed marriage in America*. A commissioned report sponsored by the National Campaign to Teen and Prevent Unplanned Pregnancy, the RELATE institute, and the National Marriage Project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https://scholarsarchive.byu.edu/facpub/4325>
- Kailes, J. (1985). Watch your language, please! *Journal of Rehabilitation*, 51(1), 68-69.
- Kessler, J. (1990). The medical construction of gender: Case management of intersexed infants. *Signs*, 16(1), 3-26.
- Lee, P., Houk, C., Ahmed, S., Hughes, I., &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 on intersex organized by the lawson wilkins pediatric endocrine society and the european society for paediatric endocrinology (2006). Consensus statement on management of intersex disorders.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 on intersex. *Pediatrics*, 118(2), 488-500.
- Lin-Su, K., Lekarev, O., Poppas, P., & Vogiatzi, G. (2015).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patient perception of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nomencl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Endocrinology*, 2015(1), 9.
- Louw, B. 2000. Contextual prosodic theory: Bringing semantic prosodies to life. In C. Heffer, H. S., & G. Fox (Eds.), *Words in context: A tribute to John Sinclair on his retirement*. Birmingham: University of Birmingham.
- MacKenzie, D., Huntington, A., & Gilmour, J. A. (2009). The experiences of people with an intersex condition: a journey from silence to vo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8(12), 1775-1783.
- Money, J. (1968). *Sex errors of the body: Dilemmas, education, counseling*.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ney, J., & Ehrhardt, A. A. (1972). *Man and woman, boy and girl: Differentiation and dimorphism of gender identity from conception to maturity*.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ntemurro, B. (2003). Sex symbols: The bachelorette party as a window to change in women's sexual expression. *Sexuality and Culture*, 7, 3-29.
- Montemurro, B. (2006). *Something old, something bold: bridal showers and bachelorette parties*.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Oxfo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December 2022. Web. 15 February 2023.

- Pauwels, A. 2003. Linguistic Sexism and Feminist Linguistic Activism. In Holmes, J., & Meyerhoff, M.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ender* (pp. 550-570).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Popenoe, D., & Whitehead, B. D. (2005). *The State of our unions: The social health of marriage in America, 2005*. New Brunswick, New Jersey: The National Marriage Project at Rutgers University.
- Preves, S. E. (1998).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Destigmatizing intersexuality. *The Journal of Clinical Ethics*, 9(4), 411-420.
- Preves, S. E. (2005). *Intersex and identity*.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Quinsey, Katherine M. (1996). *Broken boundaries: Women & feminism in restoration drama*.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Savage, R. (July 23, 2021). FEATURE-False start for intersex athletes barred from Olympics. *Reuters*. Retrieved from November 10, 2022,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olympics-2020-athletics-intersex-idUSL8N2OW50W>
- Sax, L. (2002). How common is intersex? a response to Anne Fausto- Sterling.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9(3), 174-178.
- Stern, G. (1931). *Meaning and change of mea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nglish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1964).
- Schulz, M. (1975). The semantic derogation of women. In B. Thorne, & and N. Henley (Eds.),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pp. 64-73). Rowley, Mass.: Newbury House.
- Tamar-Mattis, A., & Diamond, M. (2007). Managing variations in sex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20(4), 552-553.
- The Guardian. (April 30, 2021). The Guardian and Observer style guide. Retrieved December 30, 2022 from <https://www.theguardian.com/guardian-observer-style-guide-a>
- Topp, S. S. (2013). Against the quiet revolution: The rhetorical construction of intersex individuals as disordered. *Sexualities*, 16(1-2), 180-194.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2019).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ntersex peopl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 Van Buren, W. H., Keyes, E. L. (1874). *A practical treatise on the surgical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organs: including syphilis, designed as a manual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New York: Appleton.

- Wehmeyer, M., Bersani, H., & Gagne, R. (2000). Riding the third wave: self-determination and selfadvocacy in the 21st century.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2), 106-115.
- Xiao, R., & McEnery, T. (2006). Collocation, semantic prosody, and near synonymy: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Applied Linguistics, 27*(1), 103-129.

신근영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화: (062)530-3152
이메일: kyshin@chonnam.ac.kr

Received on February 17,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1, 2023

Accepted on March 31, 2023